



## 머리글

정민하 울리오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0)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

봄의 따스함이 가득한 4월, 하루하루가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2월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전체 사제 연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임지에서 활동하는 여러 신부님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구장님의 말씀과 희년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주제로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속한 조에서는 ‘가난한 이들의 희망’을 주제로 나눔을 가졌고 각자 사목 임지에서 겪은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과의 만남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굳건한 희망을 갖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위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Sr.가벨, 십자가2 [그림]

가톨릭교회는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야 하며 그들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라고 하신(마태 25,40) 말씀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그리스도인의 공적인 사명과 의무로 제시하며 동시에 이를 사회 정의의 본질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회칙 「사회적 관심」(Sollicitudo Rei Socialis)을 통해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여 불평등한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신앙인의 사명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실천적 사랑과 사회 구조적 변화를 촉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누구든 소외당하지 않게 하는 활동은 개인적 차원의 자선이자 동시에 참된 사회 정의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이가 존엄한 삶을 살도록 돕는 활동이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초석이자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진실한 길입니다.

특히 4월은 주님의 수난과 고통을 통해 구원의 파스카를 준비하는 사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 모두 깊은 사명감으로 진정한 회개와 보속, 절제와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교정 사목의 모든 가족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기도하고 희망합니다.

## 재의수요일 직원 미사



3월 5일(수) 교정사목센터에서 직원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수요일로 재의 축복과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사순시기 동안 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회개와 보속으로 기쁜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



3월 10일(월) 가톨릭회관 3층에서 송정섭 시몬 부위원장 신부의 주례로 월례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송정섭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예수님은 심판의 기준에 관하여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려 했는지, 작은 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일상의 행동에서 사랑은 생각과 태도와 습관으로 드러납니다”라며, “사순시기는 회개와 성찰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복음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사순시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정민하 율리오 위원장 신부의 취임과 이승민 대건안드레아 부위원장 신부의 부임 축하식도 진행되었습니다. 봉사자들과 후원회원들은 기쁜 마음으로 신부님 환영 특송을 함께 노래하였습니다. 수용자와 출소자,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전할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2025년 2월 의정부교도소를 시작으로 기쁨과희망은행 교정시설 취·창업교육이 재개되었습니다. 출소를 앞둔 수용자들에게 신용의 회복, 소상공인에 대한 이해와 사업 계획 및 전략 등의 프로그램으로 전문 강사들이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을 통해 조금이나마 출소 후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수용자 가족 자녀 주거지원의 필요성’

김일호 미카엘\_기쁨과희망은행 본부장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닙니다. 마음을 쉬게 하고, 일상을 지켜주는 따뜻한 울타리이자, 삶의 가장 기본적인 안식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기본적인 울타리조차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아이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바로 수용자 가족 자녀들입니다.

부모가 수감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정서적인 불안,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사회의 차가운 시선까지, 너무 이른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짊어진 채 하루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특히 주거 환경이 불안정하면, 아이들의 삶은 더욱 위태로워집니다. 집에서 느껴야 할 안락함과 안정감이 사라진 자리에는 외로움과 불안만이 남습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은 점점 자신을 부정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놓아버리게 됩니다. 자존감은 무너지고, 마음 깊은 곳에는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가 남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한 채의 집이 아니라,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공간, 다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 그래서 수용자 가족 자녀에게 제공되는 주거지원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실제로, 최근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구속되며 살던 집에서 나와야 했던 남매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아르바이트를 병행했고, 동생은 대학 입학을 준비하며 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밀린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거처를 옮겨야 했고, 보증금 마련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어머니가 10년 전 수감되었고, 아버지는 보증과 채무 문제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제활동이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주변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학생 자녀는 1년 넘게 월세를 미납해 퇴거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이 두 사례 모두, 기쁨과희망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통해 주거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한번 안정된 공간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작은 보금자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진학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돌봄이 가장 절실한 시기를 혼자 감내하며 살아온 아이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주거지원이라는 작은 손길은 단순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꿈을 꾸게 하는 희망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아이들에게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용기가 됩니다. 지금,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과오가 자녀의 삶까지 짓누르지 않도록, 이들이 다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조용히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작지만 소중한 지원이, 이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진짜 희망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설립 55주년을 맞이하여  
장기봉사자들의 소감을 전해드립니다.

## 10년



남미숙 율리아 / 서울남부교도소 훈련원

교정사목 봉사를 알게 되면서, 교육을 받고 처음 마주하는 두려움과 설렘으로 간 그곳에서 마주한 높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가벼워졌습니다. 이렇게 첫 만남이 시작되었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났네요. “나를 떠나기 위해 길을 걷고 길을 걸으며 나를 만납니다. 묵묵히 걸으며 나를 돌아보고 천천히 걸으며 사람과 이웃을 돌아봅니다.” 함께 걸어가는 나를 바라보며, 봉사자들과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김영옥 마리아 / 서울남부교도소 훈련원

교정봉사 처음 시작 할 즈음 다들 10년, 20년, 30년, 난 언제 저렇게 하지 했는데 아니 10년을 채울 수 있을까 했는데, 돌아서서 보니 벌써 10년이랍니다. 나이 들었구나. 일단 금요일은 하루, 직장처럼 모든 스케줄 비우고 살았습니다. 설렘 반 두려움반 호기심이 대부분인 봉사였지만 늘 즐거웠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 하며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상상 이상으로 행복 바이러스를 뿌리는 봉사자들 덕분에 다시 충전 해서 시작하는 배움이 많은 봉사입니다.

위 봉사자들과 더불어 서울구치소 최고수 임춘희 마리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김희순 크레센시아 자매님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회교정사목위원회의 봉사자로서 수용자를 위해 애쓰신 장기 봉사자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해지시길 기도합니다.

## 2024년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활동

2024년  
교정시설  
세례식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고봉중고등학교



## 교정시설 교육 및 행사



인성교육



취창업교육



고봉중고등학교



서울북부보호관찰소

## 봉사자 활동



봉사자 피경



봉사자 교육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

## 월례 미사



가톨릭회관 3층 월례 미사



5월 야외 미사



11월 사형수 위령 미사

## 후원회원 모집 미사



3월 우장산성당



4월 도봉동성당



6월 정릉동성당



10월 위례성모승천성당

송 시몬 신부님께

감사구치소에 있는 [redacted] [redacted] 배로 보내드립니다.

특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다시 바깥으로 너무 힘든  
가면서 신부님을 뵈어 반가웠지만 다시 뵈는 것을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신부님의 목소리와 우뚝서있는 고해성사 중에  
풍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제든 서울구치소에 가지게 되어 다시 볼 수 없음에  
가슴이 먹먹하지만 참입니다.

그때도 긴 재판기간에 힘들 때마다 신부님의 첫  
고해성사시에 "십자가에 대달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고쳤을까요?" 아무도없이 십자가에 대달리셔도 우리를  
응시하셨던 예수님~

그 말씀에 온갖 악몽중에 응어려진 제 마음을 울음으로  
핑핑 떨어냈었죠....

신부님!

그동안 더 멋진 신부님이 되어 계시니 감사해요.

이번에도 유익하게 감사만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사일로 앞으로는 남겨진 재판이 있지만, 모두 제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생각하고 확실히 반성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언제 어떻게 되질지 모르는 동진응화 같은 상황이지만  
조심하게 지를 주리라 이것에 보내어진 잘못을 기라 여기고  
죄인을 다해 기도하면서, 죄인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신부님!

신부님도 지금은 힘 두 있는 서울구치소 관장으로  
승계가셨지만, 늘 신부님을 생각하면서 졸음한,  
멋진 신부님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재소자들에게 가쁜 야옹, 골가튼 바깥을 신나게 뛰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신부님!

아이들끼리 지내며 늘 걱정이지만,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리라  
있습니다.

이곳에 있을때 매주 신부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힘든 생활을  
지냈었습니다. 1년 교배를 ~.....

신부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곳에 오고서야 편지라도 감사를 전할 수있어 다행이라  
여겨집니다. 제가 참 못나네요....

바쁘신 와중에 늘 건강 하시면서 치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신부님!

가끔 내외 바쁘신 신부님께 안부 전하겠습니다.

늘 사랑이 함께 하시길 ....

2025. 3. 10. 사환제 / 주일에

■ 베리바 (■■■) 올림.





# 부활을 축하합니다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



## 2025년 5월 후원회원을 위한 야외미사

5월 월례미사는 후원회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야외미사로 봉헌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를 위해 늘 함께하시는 후원회원 및 봉사자들이 신부님과 함께 자연 속에서 뜻깊은 미사도 하시고 더불어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 일시: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오전 9시(명동 가톨릭회관 정문)
- ▶ 장소: 춘천가톨릭회관
- ▶ 준비물: 편한 복장과 신발, 따뜻한 물, 모자 외
- ▶ 접수: 4월 1일(화)~25일(금)
- ▶ 전화접수: 02-921-5094 / 010-3732-5093
- ▶ 회비: 1만원(우리은행 1005-903-307477 /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 1. 전화접수(성함/연락처/주민번호) 2. 실명 입금 확인 3. 접수 확정

\* 주민번호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합니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 ● 행사 알림

- 4월 1일(화)~3일(수)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서울구치소
- 4월 7일(월)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64차 정기총회 및 월례 미사 / 가톨릭회관 3층
- 4월 7일(월)~11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서울남부구치소
- 4월 4일(금), 10일(목)~11일(금), 14일(월)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2기 인성교육 / 서울남부구치소
- 4월 14일(월)~18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수원구치소
- 4월 16일(수)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 새로운 교정사목 가족을 소개합니다. (25/02/14~25/03/14)

2025년 2월~3월에는 김미희 에스텔, 백미현, 양은혜 그라시아, 이이레, 이현영, 조세현 베드로, 진명선 유리대울리에따, 차설자님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고순례, 박지니TB, 피오르팀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후원 정보 변경 시 바로 연락주세요.

\* 010-3732-5093 \*

-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변경하고 싶을 때
- 후원금액을 변경하고 싶을 때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되었을 때

#### ※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잔액부족으로 인한 미출금이 많이 발생하오니,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